<h1>나 혼자만 레벨업-55화</h1>  
  
  
 <div class="wc3528bb091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55화</p>  
<p>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시선을 내리는데 유독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다.</p>  
<p>[칭호: 늑대 학살자 (외 1)]</p>  
<p>'...하나가 더 있다고?'</p>  
<p>아. 그러고 보니 전직 퀘스트 보상으로 새로운 칭호도 하나 얻었지.</p>  
<p>진우는 숨겨져 있는 칭호를 확인했다.</p>  
<p>[칭호: 역경을 이겨 낸 자]</p>  
<p>역경을 훌륭하게 극복한 자에게 주어지는 칭호입니다. 잃은 체력에 비례하여 능력치가 상승합니다(잃은 체력 !%당 능력치 1%).</p>  
<p>'좋다!'</p>  
<p>체력이 깎일 때마다 퍼센테이지로 능력치가 올라가는 훌륭한 버프가 있었다.</p>  
<p>짐승형 몬스터 상대로 40퍼센트의 능력치가 오르는 '늑대 학살자'도 좋은 칭호다.</p>  
<p>하지만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 버프 혜택을 보기가 힘들었다.</p>  
<p>'짐승형 마수가 아니면 칭호 효과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니.'</p>  
<p>그런 와중에 효율 좋은 새 칭호를 얻었다.</p>  
<p>설명을 읽어 보니 근성 스킬의 패시브 효과와도 아주 잘 어울렸다.</p>  
<p>진우는 고민 없이 칭호를 바꾸었다.</p>  
<p>[칭호: 역경을 이겨 낸 자 (외 1)]</p>  
<p>쓰지 않는 칭호는 감춰지고, 필요할 때 다시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었다.</p>  
<p>'다음은 스탯.'</p>  
<p>어제 업적 한계치를 초과한 대가로 받은 보상은 전부 세 개였다.</p>  
<p>하나는 상위 클래스 전직.</p>  
<p>두 번째는 칭호.</p>  
<p>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너스 스탯.</p>  
<p>[스탯]</p>  
<p>근력: 132 체력: 91 민첩: 111 지능: 70 감각: 93</p>  
<p>(분배 가능 능력치 포인트 : 10)</p>  
<p>물리 데미지 감소: 46%</p>  
<p>미분배 상태인 포인트가 10개나 있었다.</p>  
<p>예전 같았으면 민첩이나 감각에 투자했을 포인트였지만 이번엔 경우가 좀 달랐다.</p>  
<p>진우는 10포인트를 전부 다 지능에 부었다.</p>  
<p>그래도 지능 수치가 80에 불과했다.</p>  
<p>띠링.</p>  
<p>[스탯]</p>  
<p>근력: 132 체력: 91 민첩: 111 지능: 80 감각: 93</p>  
<p>(분배 가능 능력치 포인트 : 0)</p>  
<p>물리 데미지 감소: 46%</p>  
<p>근력이나 민첩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부족했다.</p>  
<p>오죽하면 민첩을 올린다고 등한시했었던 체력보다도 더 떨어졌다.</p>  
<p>그만큼 지능 스탯을 괄시해 왔다는 증거였다.</p>  
<p>'내가 마법을 쓰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.'</p>  
<p>당분간은 포인트가 생기는 대로 지능 스탯에 몰빵할 계획이었다.</p>  
<p>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전투 스타일을 바꿀 생각은 없었다.</p>  
<p>'새로 얻은 스킬도 암살자 타입이네.'</p>  
<p>전투 중에 습득한 새 스킬.</p>  
<p>단검 투척.</p>  
<p>설명을 볼 것도 없이 단검 전용 스킬이 분명했다.</p>  
<p>[스킬: 단검 투척 Lv.1]</p>  
<p>액티브 스킬.</p>  
<p>필요 마나 30.</p>  
<p>단검 전용.</p>  
<p>단검을 던져 데미지를 입힙니다. 스킬의 레벨이 올라갈수록 추가 데미지와 명중 확률이 높아집니다.</p>  
<p>'역시.'</p>  
<p>이제까지 전투계열답게 싸워 왔다.</p>  
<p>새로운 직업과 새로운 스킬을 얻었다고 갑자기 기존의 방식을 확 뒤엎을 수는 없었다.</p>  
<p>일단 그림자 스킬은 보조로 쓰고, 단검을 주력으로 사용할 참이었다.</p>  
<p>'적어도 지능 스탯을 유용할 만큼 끌어올리기 전까지는.'</p>  
<p>뛰어난 전투력.</p>  
<p>그걸 뒷받침하는 보조 병력들.</p>  
<p>전직을 받아들이던 당시의 계획은 지금도 마찬가지였다.</p>  
<p>'다만 예상과 차이점이 있다면...'</p>  
<p>생각보다 그림자 병사들의 쓸모가 많아 보인다는 것.</p>  
<p>보스몹이 수하가 될 줄은 몰랐다.</p>  
<p>'...그래도.'</p>  
<p>그림자 스킬들을 주력으로 삼기엔 단검 숙련도나 익힌 기술들이 너무 아까웠다.</p>  
<p>나이트 킬러를 산 직후기도 하고.</p>  
<p>'마법계열이 될 줄 알았으면 상점에서 지팡이라도 살 걸 그랬나.'</p>  
<p>물론 그랬었다간 전직 퀘스트도 못 끝내고 기사들 틈 속에 파묻혔겠지만.</p>  
<p>진우는 상태창을 닫았다.</p>  
<p>이 정도면 달라진 건 거의 다 둘러 본 셈이었다.</p>  
<p>'가만, 시간이?'</p>  
<p>여차하는 시간에 20분이 지났다.</p>  
<p>진우가 옆머리를 긁적였다.</p>  
<p>'좀 서둘러 볼까?'</p>  
<p>진우의 입꼬리가 쓱 올라갔다.</p>  
<p>스탯의 힘은 마수들과 싸울 때만 도움되는 게 아니다.</p>  
<p>정신을 집중하자 시간이 느려지기 시작했다.</p>  
<p>아니, 정확히는 진우가 빨라진 거다.</p>  
<p>문을 열고 방을 나가.</p>  
<p>욕실에서 샤워를 끝낸 다음.</p>  
<p>물기를 닦고서.</p>  
<p>대충 옷을 골라 입고 다시 거울 앞에 섰다.</p>  
<p>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불과 3분.</p>  
<p>더 빠르게도 움직일 수 있었지만 그랬다간 이 낡은 아파트가 남아날 것 같지 않아 최대한 힘을 아꼈다.</p>  
<p>'아직 머리가 덜 마르긴 했지만.'</p>  
<p>결과적으로는 20분 넘게 아꼈으니 발을 동동 구를 필요는 없어졌다.</p>  
<p>가볼까?</p>  
<p>방을 나서려던 진우가 무언가를 발견하고 우뚝 걸음을 멈췄다.</p>  
<p>집 열쇠.</p>  
<p>열쇠가 책상 위에 있었다.</p>  
<p>평소 같았으면 귀찮은 듯 돌아서서 열쇠를 챙겨 나왔겠지만, 오늘은 그리로 걸음을 옮기는 대신 열쇠를 향해 손을 뻗었다.</p>  
<p>'이럴 때 아니면 어디다 쓰겠어?'</p>  
<p>지배자의 손길!</p>  
<p>열쇠가 슬금슬금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곧 강력한 자력에 끌리는 것처럼 손 안에 쏙 들어왔다.</p>  
<p>휙!</p>  
<p>열쇠를 낚아챈 진우가 씩 웃었다.</p>  
<p>그렇게 순식간에 외출 준비를 끝낸 진우는 휘파람을 불며 방문을 닫았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진우는 우선 은행에 들렀다.</p>  
<p>그동안 마정석 처분한 돈이 얼마나 쌓였는지 궁금했다.</p>  
<p>'바빠서 못 오고 있었지만.'</p>  
<p>마정석 관리는 공대장인 유진호가 전부 담당하고 있었다.</p>  
<p>듣기론 하루 일정이 끝날 때마다 곧장 마정석을 판매하고 수익금을 통장에 입금해 둔다고는 하던데.</p>  
<p>딱히 금액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.</p>  
<p>'진호 녀석, 다른 건 세세한 거 하나하나 일일이 보고하는데 돈 문제는 별로 말을 안 한단 말이지.'</p>  
<p>관심이 없다고 해야 할까?</p>  
<p>워낙 풍족하게 자라 와서 그런지 유진호의 관심사는 늘 돈과는 거리가 멀었다.</p>  
<p>주로 연예인 이야기, 레이드 이야기, 좋아하는 노래와 영화 이야기가 대화의 단골 소재였다.</p>  
<p>대화라고는 해도 늘 유진호 혼자서 신나게 떠들어 대다가, 듣고 있던 진우가 가끔식 대꾸하는 게 전부인 수준이지만.</p>  
<p>'아, 그러고 보니...'</p>  
<p>그렇게 말이 많은 녀석이 의외로 가족 이야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.</p>  
<p>신기한 일이었다.</p>  
<p>처음 만났을 때부터 기억을 되짚어봐도 역시 마찬가지였다.</p>  
<p>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무렵, 진우는 은행에 도착했다.</p>  
<p>'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.'</p>  
<p>ATM기 쪽 기기들은 점검 중이었다.</p>  
<p>어쩔 수 없지.</p>  
<p>은행 안으로 들어간 진우는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다가 순서가 되자 은행원 앞에 앉았다.</p>  
<p>"안녕하세요?"</p>  
<p>귀밑까지 오는 단발에 싱그러운 미소.</p>  
<p>여직원이 친절하게 물었다.</p>  
<p>"어떻게 도와드릴까요?"</p>  
<p>"통장 정리 부탁합니다."</p>  
<p>"알겠습니다."</p>  
<p>여직원은 미소를 유지하며 진우가 내민 통장을 건네받았다.</p>  
<p>기다리는 동안 진우는 은행을 둘러보았다.</p>  
<p>특별할 것 없는 평일 오후인데도 사람이 많았다.</p>  
<p>진우가 사람 구경을 하고 있을 때 여직원은 진우의 통장에 든 잔액을 보고서 눈을 휘둥그레 떴다.</p>  
<p>'헉!'</p>  
<p>[잔액: 14억8천292만 원]</p>  
<p>단위를 다시 확인해 봤지만 맨 앞자리가 십억이 확실했다.</p>  
<p>그것도 평생 모은 게 아니었다.</p>  
<p>일주일 동안 매일 억이 넘는 거액이 꾸준히 입금되었다.</p>  
<p>'나이도 어려 보이는데 어떻게?'</p>  
<p>진우를 엄마 심부름으로 통장정리하러 온 대학생쯤으로 여겼던 은행 여직원의 눈빛이 확 달라졌다.</p>  
<p>여직원은 약간의 사심을 담아 물었다.</p>  
<p>"어머! 혹시 무슨 일 하세요?"</p>  
<p>사심이 담긴 질문이 스스로도 부끄러운지 진우의 눈치를 흘깃 살피는 여직원의 뺨이 약간은 상기되어 있었다.</p>  
<p>진우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.</p>  
<p>"헌터입니다."</p>  
<p>"아..."</p>  
<p>여직원은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거렸다.</p>  
<p>소문이 사실이었다.</p>  
<p>'헌터들이 그렇게 돈을 잘 번다더니.'</p>  
<p>수입이 이 정도일 줄이야.</p>  
<p>갑자기 평범한 월급쟁이인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였다.</p>  
<p>방금 전까지는 흔한 고객이었는데.</p>  
<p>지금은 진우가 아예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으로 보였다.</p>  
<p>'등급이 꽤 높은 헌터시겠지?'</p>  
<p>그저 그런 헌터가 만질 수 있는 돈이 아니니까.</p>  
<p>처음 만나보는 최상급 헌터.</p>  
<p>그 생경함이 여직원을 조금씩 설레게 만들었다.</p>  
<p>콩닥콩닥.</p>  
<p>가볍게 가슴이 뛰었다.</p>  
<p>헌금으로 10억 이상의 자산을 가진 '젊은 고객'이라면 은행에서도 VIP다.</p>  
<p>그 고객의 직업이 헌터라면 그야말로 VVIP.</p>  
<p>여직원은 VVIP를 놓치지 않기 위해 업무 방침대로 여러 은행 상품을 홍보했다.</p>  
<p>"저희 은행에서 VIP 고객님들을 위한 상품이 이번에 새로 나왔거든요."</p>  
<p>접대용 미소가 아니라 진짜 미소를 짓고서.</p>  
<p>여직원의 시선은 진우에게 고정됐다.</p>  
<p>'어머, 어쩜...'</p>  
<p>급하게 나온다고 대충 챙겨 입은 옷과 약간은 부스스한 헤어스타일마저 바쁜 일정 속에서 겨우 짬을 낸 능력남의 일상을 엿보는 거 같아 가슴이 두근거렸다.</p>  
<p>"고객분들의 반응이 몹시 좋은 상품인데 한번 투자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?"</p>  
<p>하지만 진우는 손을 내저었다.</p>  
<p>"아뇨, 괜찮습니다."</p>  
<p>"아... 그러세요."</p>  
<p>여직원의 목소리에서 아쉬움이 묻어나왔다.</p>  
<p>잘못하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 진우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.</p>  
<p>"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어요."</p>  
<p>그렇게 목덜미에 와 닿는 여직원의 시선을 무시하고는 은행을 나갔다.</p>  
<p>은행 문이 닫히자마자.</p>  
<p>"후-."</p>  
<p>진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.</p>  
<p>직업이 헌터라고 밝히자마자 여직원의 시선이 변하는 걸 눈치챘다.</p>  
<p>타인의 시선.</p>  
<p>그리고 관심.</p>  
<p>대부분의 헌터들에겐 일상이지만 진우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다.</p>  
<p>'그래도 익숙해져야겠지.'</p>  
<p>등급 재심사에서 높은 등급이 뜨면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해질 거다.</p>  
<p>헌터들을 따라다니는 기자나 팬들도 많다고 들었다.</p>  
<p>문득 고개를 들자.</p>  
<p>멀리 빌딩 위에 인기 헌터가 음료를 광고하고 있는 전광판이 눈에 들어왔다.</p>  
<p>게이트가 생기기 전에는 스포츠 선수나 유명 아이돌들이 있었던 자리였다.</p>  
<p>그렇다.</p>  
<p>헌터가 연예인보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는 시대.</p>  
<p>진우에게도 예외일 수 없었다.</p>  
<p>요즘 같은 때에 헌터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보험사 직원 정도뿐이니 말이다.</p>  
<p>'그건 그렇고.'</p>  
<p>은행을 나오고서야 진우는 간신히 잔고를 확인해 볼 수 있었다.</p>  
<p>진우의 눈이 커졌다.</p>  
<p>'14억8천...!'</p>  
<p>아홉 번의 레이드로 얻은 수입의 총합이 약 15억.</p>  
<p>C급 던전 하나당 1억6천이 들어온 셈이었다.</p>  
<p>황동석 일행과 함께했던 던전에선 1억8천을 벌었으니 C급 던전에서 얻을 수 있는 평균 수입이 대충 1억 5천에서 2억 사이라는 말이었다.</p>  
<p>'이러니 여직원이 놀랄 만도 하지.'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